

월요광장



박석무
다산연구소 이사장
우석대 석좌교수

역사가 제대로 바로잡히려는 정조인가? 지난 6월 10일, 6·10항쟁 34돌 기념일을 맞아 민주주의 발전 유공자 29명에게 모란장인 훈장과 국민 포장 및 대통령 표창장이 수여되었다는 기사를 읽으면서 문득 떠오른 생각이다. 목숨을 바쳐 민주주의를 지켰던 열사들에게 포상이 수여되었으니 반갑고 기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었다. 그들의 목숨을 바친 희생이 없었다면 과연 오늘 이만큼의 민주화라고 이룩될 수 있었을까. 그런 면에서 생각하면, 참 잘한 일이다 싶으면서도 너무 늦지 않았느냐는 아쉬움도 남는다.

계훈제 선생, 김근태 의장, 김병권 부의장 등 모두 25명이 이번에 모란장을 수여 받았다. 그중에는 우리 모두가 잘 아는 우리 지역 사람들이 많았다. 박관현·나병식·명노근·박래전·조성만·정광훈·표정두·김경숙 열사 등 여덟 분. 이름만 보아도 열사이자 투사이던 그분들을 우리는 쉽게 기억할 수 있다. 게다가 나로서는 대부분 생전에 가깝게 지냈던 분들이어서 더욱 그분들의 의훈과 열혈의 민주주의 정신에 추모의 마음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명노근 교수, 나병식·박관현 후배, 정광훈 친구, 표정두 제자, 모두 잊을 수 없는 추억이 있던 분들이다. 신문

6·10항쟁 34돌, 김경숙 열사를 추모함

에 실린 그분들의 사진을 보면서 그 무섭고 힘들던 투쟁의 시대에 있었던 옛 일을 되살려 내지 않을 수 없었다. 하지만 단 한 분, 생전에 전혀 인연이 없던 분이 바로 김경숙 열사다. 김 열사는 순국한 뒤에야 특별한 인연을 맺었으니, 오늘은 그 분 김 열사의 이야기를 해야겠다. 1977년 국제사면위원회(엠네스티 인터내셔널)가 단체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했다. 이미 서울에는 엠네스티 서울지부가 있었으나 우리 광주에는 그런 단체가 없었다. 그래서 평화상 수상을 계기로 광주의 뜻있는 민주 인사들이 모여 엠네스티 광주지부를 결성하여 활동을 시작한 때가 그해 12월이었다. 그후의 광주지부 활동 내용은 2007년에 간행된 ‘광주 엠네스티운동 30년사’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으니 생략한다.

1979년, 혹독한 유신독재의 마지막 해였다. 독재 타도를 외치는 민중의 합성이 온 나라를 뒤덮고 있던 시절, 청천벽력 같은 비보가 날아들었다. 신민당사에서 농성하며 노동 투쟁의 맨 선두에 서 있던 광주의 딸 김경숙(金景淑 1958~1979) 열사가 순국했다는 소식이었다. 때는 79년 8월 11일 새벽 2시 30분 경, 장소는 서울 마포 신민당사 YH여공 노동투쟁 현장. 그는 거기서 그렇게 민주주의에 몸을 바쳤다.

이 소식을 접한 광주엠네스티 회원들은 충천하는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광주의 딸 김경숙 열사의 추모 행사를 갖기로 하고 즉각 추모회를 열었다. 마침 그해 8월 13일 광주 YMCA 후원관에서 신민당 총재 김영삼을 초청해 시국강연회를 열기로 예정된 날이었다. 김총재는 당사에서 벌어진 투쟁사건으로 참석이 불가능해졌지만, 광주엠네스티는 바로 그날 그 장소에서 추모회를 열기로 발표하였다. 8월 13일 저녁의 일이다.

그때 광주지부 총무로 일하던 필자는 11일의 뉴스를 듣고 오후에 광주시 학동에 있는 김 열사의 집을 찾아가 유품을 확인하고 남동생에게 보낸 편지 등을 읽어 본 뒤 그가 노동운동가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추락사가 아닌 타살로 믿고, 바로 추도식 준비를 했다. 광주 YMCA 대강당에는 무려 1500여 명의 시민들이 운집하였다. 분노를 삭이지 못하는 청중들의 열기를 안고 추모행사가 진행됐다. 필자가 긴급히 추모사를 작성하고 그때 광주의 민주 투사이자 종교 지도자이던 유연창 목사께서 추도사를 낭독했다. ‘겨레 앞에 순국한 위대한 민족의 딸 고 김경숙 양 영전에!’라는 제목의 추도사는 통곡에 가까운 비통한 내용으로 점철되어 있었다.

“북악산도 한강 물도 슬피 울고/ 무등산 극락강도 애처로이 울어 예는/ 이 나라 광복의 달 8월의 하늘 아래/ 겨레의 딸 김경숙 양이 꽃다운 스물한 살 처녀의 몸으로/ 조국의 민주 회복 투쟁에 희생의 제물로/ 이 나라 근로 민중 앞에서 십자가 지고 그리스도 제자의 길을 갔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추도사에는 김경숙 양의 가난했던 가정 형편, 누나가 돈을 벌어 남동생을 가르치던 뜨거운 형제애, 부모님을 편안히 모시려던 효심, 민주주의를 회복해야만 국민들이 편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김경숙의 생각까지를 모두 담았다. 죽음을 각오하고 노동3권을 쟁취해 내겠다는 각오도 충분히 기술되어있다.

노동 열사 김경숙 양이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여받았으니 그의 외로운 영혼에 조금이라도 위로가 된다면 좋겠다. 광주의 딸, 김 열사의 의혼들이 뭉쳐서 광주의 5·18 항쟁도 일어났다. 우리 모두 김 열사를 추모하며 영원한 안식을 누리도록 빌어 드리지.

社說

건설 현장 안전 위한 입법 보완 서둘러야

‘광주 학동 재개발구역 철거 건물 붕괴 참사’는 불법 하도급과 부실한 건물 해체 및 감리 등 건설 공사 현장의 고질적인 병폐와 안전 불감증이 빚은 사고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유사 사고의 재발을 막고 시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일단 정치권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잇그제 당정 협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 시민 재해’ 범위에 건설 현장을 추가하기로 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6월 입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김영배 의원이 이날 발의한 개정안에는 건축물 해체 공사를 포함한 건설 현장의 안전관리와 유해 위험 방지 조치를 하지 않아 건설 현장을 추가하기로 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6월 입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올해 초 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법에는 건축물 해체 공사로 인한 재해는 포함되

지 않아 기업 경영 책임자 등에게 관리 책임을 묻기 어려운 점을 감안, 이를 보완한 것이다.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의 건축물 해체 공사 시 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나 지자체가 위탁한 건축물 관리 점검기관의 철거 현장에 대한 안전 점검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건축물 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철거 현장 주변을 통행하는 보행자와 차량 등의 사고 위험이 우려되면, 허가권자의 일시적 통행 제한이나 우회로 확보를 의무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건설 현장에서 대형 재해가 반복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이 같은 문제들을 포함해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법안을 꼼꼼히 재정비해야 한다. 특히 이번 사고에서 드러난 건설업계의 다단계 하청 관행 등을 뿌리 뽑으려면 원청 기업의 책임도 강화해야 한다. 여야는 긴밀히 협력해 해당 법안들이 조기에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여순사건 유족들의 애절한 염원 이뤄지나

현대사의 비극인 여순사건 희생자의 명예 회복과 진상 규명을 위한 ‘여순사건 특별법안’이 21대 국회에서 제정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단 전망은 밝아졌다. 엇그제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최근 여야 합의로 상정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앞으로 법사위와 본회의를 남겨 두고 있지만, 여야 사이에 특별한 이견이 없기 때문에 통과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여순사건 특별법은 지난 2001년 16대 국회 이후 네 차례 발의됐으나 매번 상임위에 계류되면서 자동 폐기를 반복해 왔다. 이번에 특별법이 통과된다면 희생자들이 억울한 죽음을 당한 지 73년 만이다. 이 때문에 특별법이 상임위에서 통과되자 여순사건 유족과 지자체 및 시민단체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표했다.

순천시 여순10·19민관협의회는 “이번 행안위 통과까지 많은 분이 함께 애써 준 덕분에 여기까지 왔고, 야당 의원을 만난 이후 분위기가 완전히 것 같다”면서 “이제 법사위와 본회의까지 이달 안에 모두 통과되어 73년을 기다려 온 유족들의 한과 눈물을 닦아 주시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여순항쟁 유족연합회도 특별법 통과에 감사드리라며 “한 명이라도 더 살아가실 때 특별법이 제정되기를 바라는 유족들의 애절한 염원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여순사건은 해방 공군에서 일어난 비극적 사건으로 군정에 의해 수많은 민간인 피해가 발생한 대표적인 국가 폭력 사건 중 하나다. 그동안 희생자와 유족들은 빨갱이로 몰려들 숨죽이며 한 많은 세월을 보내 왔다. 따라서 특별법이 조속히 본회의에서 통과돼 그들의 한을 풀어 주고 국가 폭력이라는 잘못된 역사가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40칼럼



김대현
위민연구원장·시사평론가

내년에 대통령 선거(3월)와 지방선거(6월) 등 양대 선거가 있다 보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한다. 호남에서 상당한 지지를 받고 있는 여당의 재집권이 가능하겠는지와 왜 여당은 그 많은 의석수를 갖고도 지리멸렬한가에 대해.

현재의 흐름과 추세로 본다면 여당의 재집권은 쉽지 않다고 본다. 그러나 정치 시계는 일상의 시계와는 다르다. 9개월 앞으로 다가온 대선은 충분히 있지만 시간의 여유가 있다. 더욱이 한국 정치는 역동적이고 변화무쌍하다.

더불어민주당의 역사를 보면 1987년 민주화 이후 W자 행태를 보이고 있다. 꼭짓점에 오를 때 마다 반복적으로 무능과 오만이 존재한다. 보수정당을 견제할 대안이 없어 능력과 상관없이 다시 꼭짓점에 오르지만 자신들의 실력만으로 정상에 오른 줄로 착각하고 개선장군의 행태를 보인다는 것이다. 특히 인사 문제에 있어 능력과 실력보다는 계파 중심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묻기도 힘들다.

W는 주식시장으로 보면 투자자들이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지 못하고 투기 세력들이 단타를 통해 이익을

2007년·2012년 대선의 교훈

보기 위해 들어가는 불안정한 장세에 비견할 수 있다. 물론 그 피해는 국민(소액 투자자)의 몫이 된다.

반대로 보수정당은 87년 이후 수평선을 유지하다 박근혜 정부 때 크게 폭락했다가 다시 상승하는 추세다. 정당 형태로만 본다면 민주당보다는 안정적이다. 그러나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기 보다는 안주하고, 능력은 있지만 그 능력이 대다수의 국민을 위한다기보다 소수 기득권 세력에 편향되어 있다. 요즘이야 여당이 부패하다고 하지만 과거 보수정당의 부패는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많았다.

흔히 정당의 지지 요인으로 정당 일체감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미국 정당과 다르게 일체감이 약하다. 미국은 오랫동안 공화당과 민주당이 우리나라처럼 번갈아가며 집권하는 양당제이지만, 유권자들은 정당에 대한 일체감이 강하다. 반면 우리나라는 무당층(중도 포함)의 비율이 크게는 30~40%까지 육박한다. 물론 선거가 다가올수록 무당층의 비율은 낮아지지만 그만큼 정당 일체감이 떨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틈만 나면 백년 가는 정당을 만들겠다고 한다. 그러나 백년정당의 기틀을 다질 정당 체제 개편과 제도화를 위한 정치 개혁은 방지하고 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 보자. 과연 현재 여당의 재집권이 가능한 것인가. 현재 여당의 대선 구도로 본다면 지지율 1위를 달리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경선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크지만 결선 투표라는 변수와 지지율이 박스권에 묶인 한계가 있다. 또한 이 지사를 상대로 하는 이낙연·정세균 전 국무총리를 포함한 제3의 후보들

의 연대가 얼마나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인지, 당내 최대 계파인 친문 세력이 어느 후보의 손을 들어줄 것인지도 변수로 남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사가 결선투표까지 통과해 당내 후보가 된다면 2007년 대선의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이 있다. 당시 정동영 후보가 당내 경선에 승리했지만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에게 패배한 건 경선 과정에서 친노 세력들의 ‘안티’(anti)가 컸기 때문이다. 당시 경선에서 패배한 친노 유시민의 “한나라당이 집권해도 나라 망하지 않는다”는 발언처럼 같은 당 대선 후보인 정동영을 인정하지 않았다. 물론 당시 정 후보는 경선 과정에서 버스 동원 박스 떼기 등 부정 선거 논란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당내 친노 세력은 사실상 대선을 포기했다고 보는 게 옳다.

2012년 대선 패배의 문제점은 이명박 정부의 실정으로 지지율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점이다. 흔히 선거는 집권 여당에 대한 심판의 성격인 회고적 투표 형태가 강하지만, 대선은 회고적 투표보다는 전망적 투표 행태를 보인다. 즉 미래에 대한 희망 비전을 보고 투표한다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먼저 해야 할 것은 2007년과 2012년 대선 패배의 교훈과 원인을 분석하는 것일 수도 있다.

민주당은 지금도 당내 경선 연기와 불가론을 놓고 논쟁을 겪고 있다. 하지만 전투(당내 경선)에서 승리하고 전쟁(대선)에서 패배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적어도 대선 후보는 당내 계파 전쟁의 승자가 아니라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후보여야 한다.

인생 2막, 전남에서 시작하자

새로운 동력으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남에서 먼저 살아 보기’ 사업이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이다.

지난 2019년 시작된 ‘전남에서 먼저 살아 보기’ 사업은 올해로 3년째를 맞이하여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도내 21개 시군 및 마을·농가에서 도시민을 대상으로 귀농·귀촌 교육, 현장 체험, 주민 교류 등 프로그램 중심의 ‘일반형’과 1차 농수산물을 활용한 6차 산업 기술 및 기타 전문 기술 전수 교육을 하는 ‘특화형’ 두 가지 과정으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다. 예비 귀농·귀촌인이거나 최근 정착한 주민을 대상으로 안정적 정착을 돕기 위해 농산물 가공 등 전문 기술과 취업·창업 기술 이전 등의 지원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한다.

이를 통해 도시민은 농산어촌 문화를 이해하고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받게 되며, 농산어촌 마을은 도시민과 함께 살아가면서 마을 공동화를 극복하고 마을 주민 스스로 귀농·귀촌인 유지 활동을 전개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전남 살아 보기는 2019년 810명이 참가해 92명이 전남으로 주소를 이전했으며, 2020년에는 참가자 470명 가운데 125명이 정착하는 가시적 성과를 거뒀다. 참가자의 17% 이상이 전남으로 주소를 옮긴 것으로 다른 인구 유치 사업에 비해 훨씬 가성비가 좋은 효과 사업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전남살이’가 어느 사업과 다른 점은 운영 마을 사무장이 멘토 역할을 자청해 참가

자가 원하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참가자가 미래에 정착할 집이나 토지를 앞선·구매할 수 있도록 절대적인 도움을 준다 는 것이다.

이러한 사업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2021년에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전남에서 먼저 살아 보기’를 모 모델로 ‘농촌에서 살아 보기’ 사업을 신설해 전국으로 확대 시행 중이다. 9개 시도 89개 시군을 대상으로 참가자를 모집해 귀농·귀촌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 가고 있다.

전남도는 앞으로도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 유치를 위해 현장의 의견을 수용해 수요자 중심의 차별화된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도시민이 전남에서 안정적으로 정착 할 수 있도록 수요자 맞춤형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귀농·귀촌의 핵심은 ‘농산어촌 마을에 있다’는 생각으로 마을 주민과 도시민들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전남 살아 보기’뿐만 아니라 차별화된 인구 구조 변화 대응 체계 구축, 청년이 공감하는 맞춤형 정책 추진, 팜 캠프 임신·출산 서비스 등 인구 정책 사업 간의 체계적 협업을 통해 농산어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

답답한 도시에서의 짝달린 삶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귀농·귀촌 1번지인 전남에서 미리 살아 보시기를 적극 권한다.

기고



윤연화
전남도 인구청년정책관

최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1년 1분기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전남의 올해 3월 말 기준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은 23.7%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높았다. 특히 농촌 지역 농가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은 전년의 44.7%보다 1.9% 포인트 상승한 46.6%나 됐다. 이처럼 전남은 지난 2014년부터 일찌감치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다. 특히 연령별로는 전남의 10대와 20대 순유출이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중앙 부처는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모색하고 있으며, 전남도 또한 전남·경북 공동으로 소멸 위기 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인구 감소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바야흐로 귀농·귀산·귀어·귀촌이 인구 감소 시대 도시민들의 새로운 삶의 대안이자 활력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농촌으로 유입하는 인구가 지역의

無等鼓

고래

고래잡이를 모티브로 한 장편소설 ‘모비 닥’(1851)은 시대를 초월한 고전이 다. 미국 작가 허먼 멜빌은 항우고래에게 반해 침몰한 포경선에서 영감을 얻어 소설을 썼다. 흰고래인 ‘모비 닥’은 ‘백경’(白鯨)으로도 번역되는데 한편으로는 ‘자연’이나 ‘신화’를 상징한다.

에이허브 선장은 고래에게 한쪽 다리를 잃은 뒤 오로지 ‘모비 닥’이라는 고래를 잡기 위해 혈안이 돼있다. 그와 달리 포경선에 오르는 것이 꿈이었던 이스마엘은 침착하고 합리적인 인물이다. 오랜 항해 끝에 모비 닥을 발견한 에이허브는 3일간의 사투를 벌인다.

그러나 무모한 복수심 탓에 그는 결국 작살의 밧줄에 걸려 바다에 수장되고 만다. 다른 선원들과 배도 모두 물속으로 가라앉고, 유일하게 살아남은 이스마엘은 후일 바다에서 겪은 일을 기록으로 남긴다.

얼마 전 CNN 등 외신에 ‘고래 입속에서 살아 돌아온 잠수부’라는 이야기가 보도됐다. 바닷가재를 잡다가 고래 입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사고를 당한 미국 어부의 이야기다. 어부는 ‘갑자기 어두워지자 상어에게 물린 거라 생각했는데, 얼마 후

고래 입속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한다. 그는 고래가 자신을 빨아내는 바람에 기적적인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구약성경에는 고래에게 삼켜 뱃속까지 들어갔다가 살아나온 요나라는 선지자 이야기가 나온다. 요나는 악으로 가득한 니느웨 성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는 하나님 명령을 거역하고 배를 탄다. 얼마 후 거센 폭풍이 몰아치자 뱃사람들은 제물을 바치기로 하고 제비뽑기를 한다. 안타깝게도 요나가 그 대상이 되고 그는 물에 던져진다. 3일간 고래 뱃속에 갇혔던 요나는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하고 극적으로 살아난다.

인류 역사에서 고래는 경외와 신비, 선과 악, 삶과 죽음 등 다양한 소재로 변주돼 왔다. 그러나 소설에서의 ‘모비 닥’과 흑등고래에서 살아난 어부 그리고 선지자 요나의 사례는 고래와의 대립이 아닌 순응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거대한 자연에 맞서 생존한 이들은 결과적으로 순리를 따르는 선택을 했다. 그러나 다른 무엇보다 이들이 살아남았다는 것은 아직은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박성진 문화부 부장 skypark@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국무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선		경 영 지 원 국 220-0515 문 화 사 업 국 220-0541	
편 집 부 220-0649	〈대표 FAX 222-4918〉	(FAX 222-8005)	(FAX 222-0195)
정 치 부 220-0632	문 화 부 220-0661	기 획 관 리 국 227-9600	업 무 국 220-0551
경 제 부 220-0663	예 향 부 220-0692	(FAX 222-0195)	(FAX 222-0195)
사 회 부 220-0652	사 진 부 220-0694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전 남 본 부 220-0642	체 육 부 220-062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